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텍시도 룩(Tuxedo Look)의 미적특성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of Tuxedo-Look in the Modern Women Fashion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6. 4. 28.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of Tuxedo-Look in the modern women fashion from 1990s to the present. It c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aspects and the sense of beauty of the modern fashion. This study is performed by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related literature and deploying fashion portfolio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magazines for the exploratory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uxedo-Look expresses the androgenous image which weakens the superficial message of masculinity or femininity and produces the unified image of men and women. Tuxedo-Look, a symbolic male dress item, is brought in the women clothes and it is recreated by design modification, new wearing style, and producing effects. Second, Tuxedo-Look emphasizes femininity by using a exposure and body line stressed design and matching the women dress items with various materials and colors or tuxedo. Third, Tuxedo-Look suggests a dismantling point of view such as exaggeration, distortion, secession, and breaking from the convention. Tuxedo-Look expresses uncertain value by breaking up the symbolic value by coordinating with casual items and denies formal construct of tuxedo such as perfect balance, symmetrical silhouette, formality, totality.

Key words: Androgyny, Femininity, Dismantlism; 양성성, 여성성, 해체성

I. 서 론

패션이란 문화적 산물로서 한 시대의 문화 및 그 가치관의 변화는 패션의 생성과 변화에 있어 촉매역 할을 함과 동시에 인간의 사회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측면 즉 성적추구에 대한 욕망, 개인적 선호, 감성, 지적 호기심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자아와 사회적 비판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회

문화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 특유의 특성은 현대에 이르러 현대예술의 한 영역으로 확대 해석되며(허정선, 금기숙, 2004) 새로움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충동적인 욕망으로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게 한다.

오늘날 현대 패션의 경향이 고정관념의 해체를 통한 개인의 개성연출과 자유의 표현으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하나의 장르가 아닌 다양한 경향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패션에 있어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스타

[†]Corresponding author

E-mail: bcbgyoung@hanmail.net

일로 하나의 기본스타일로 정착되어 다양한 트렌드와 함께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남성 예복의 클래식한 아이템인 턱시도(Tuxedo)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턱시도 룩이라는 하나의 스타일로 명명되어 1960년대 중반 여성복에 받아들여진 이후 이제는 이브닝 웨어 뿐 아니라 데이 웨어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여성패션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다원주의와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장르와 영역 및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별에 있어서도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패션에 반영되어 표현된 양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시도 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체체 관련 또는 각 디자이너의 작품연구들을 통해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격양면성을 나타내는 턱시도 룩의 미적특징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패션이 표현하는 양상과 미의식을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패션관련 작품집과 국내의 패션잡지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범위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는 1990년대 접어들어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패션에 대한 가치관과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전환적 시기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II. 턱시도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서양 남성 예복차림에는 정식 예복인 모닝코트(Morning coat)와 테일 코트(Tail coat), 준 예복인 턱시도, 약식 예복인 블랙 수트(Black suit)가 있다(권수에 외, 2005).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예복은 주로 귀족의 근엄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1886년 턱시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예복은 형식보다 맵시를 중시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고 근엄함 보다는 사교생활의 예의 표현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이러한 예복을 통해 자신의 지위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정신을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턱시도는 비공식적인 이브닝 행사 때 착용하는 남성

용 준 정장으로 가장 정통한 블랙 턱시도를 비롯하여 주로 여름에 입는 아이보리 턱시도 그리고 색상이나 스타일을 다소 변형시킨 팬시 턱시도 등이 있다. 미국 턱시도에 대한 영국식 표현으로 디너 재킷(Dinner Jacket)이라고도 불리며 프랑스에서는 스모킹 재킷(Smoking Jacket)이라 불렀고(신인수 외, 2003),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에 의해 1960년대 중반 여성복에 받아들여졌다.

턱시도는 1886년 뉴욕의 턱시도 파크에 있었던 컨트리 클럽에서 유래되어 이름 지어졌다. 1886년 10월 미국 뉴저지 주의 턱시도 파크에서 열린 턱시도 클럽 가을 무도회에서 그날의 모임을 주관한 마을의 최고 유지 로리 라이트는 테일 코트의 꼬리를 잘라낸 획기적인 차림을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 그가 이 같은 모양을 생각해낸 것은 영국 에드워드 7세가 영국의 황태자로서 인도를 방문했을 때 너무 더워서 상의의 꼬리를 잘랐다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거주장소였던 테일 코트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독특한 스타일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여 결국 턱시도 클럽의 모든 이들이 이 옷을 입게 되었고 급기야는 전 세계의 상류사회에 퍼져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턱시도는 늑대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 살았던 아르곤키안 인디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르곤키안족 추장 이름은 늑대를 뜻하는 턱시트(P'tauk-seet)였고, 이 추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인디언들은 이 지역을 턱시트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후에 턱시도를 만든 로리 라이트의 조부가 이 부근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이름이 턱시도가 되었다고 한다(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이러한 유래에서 비롯된 턱시도는 검정색이 가장 기본으로 새틴 또는 그로그랭으로 만든 솔칼라나 보통 양복 라펠모양의 노치드 라펠의 싱글 재킷과 양 옆솔기에 파이핑이나 공단 테이프, 브레이드 등이 있는 검정 팬츠에 워 칼라 또는 레귤러 칼라셔츠를 입고 검은색 보우 타이, 검은색 커머번드(Cummerbund), 서스펜더를 갖추어 입는 것이 가장 정통한 차림이며 검은색 실크 양말에 검은 에나멜 구두까지 갖추어 신는 것이 제대로 된 격식이며 장갑은 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턱시도 재킷은 새틴, 파이유, 또는 본 바탕직물과 대비를 이루는 기타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 안에는 남자들의 정장 셔츠와 같은 블라우스 즉 앞이 턱받이 처럼 되었거나, 러플이 수직으로 달렸거나, 대

조가 되는 다른 색의 깃이 달려 있는 텍시도 블라우스를 갖추어 입게 된다(패션 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원래 텍시도 차림에는 실크 조끼를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근래에는 조끼 없이 실크 소재의 커머번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우타이와 커머번드에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주어 개성을 연출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여름에 착용하는 아이보리 텍시도는 옆선이 있는 아이보리 또는 검정팬츠에 윙 칼라 셔츠, 검은색 보우타이와 커머번드, 서스펜더가 정식이며, 오늘날에는 사계절 어느 때나 입을 수 있는 화려하고 깔끔한 예복으로 사랑받고 있다(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이러한 남성예복의 전유물이던 텍시도는 1966년 이브 생 로랑의 컬렉션에서 블랙 실크새틴 칼라와 블랙 울 슈트, 러플이 달린 화이트 코튼 블라우스, 블랙 새틴 보 타이와 커머번드로 구성되어 여성복에 첫 선을 보인 후 패션의 클래식과 같은 아이템이 되었다(Fig. 1).

디올 옴므(Dior Homme)의 에디 슬리만(Hedi Slimane)은 “텍시도는 유행에서 사라진 예가 없었다. 패션은 유행 앞에서 망설일 때 클래식한 텍시도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완벽하게 커팅되고 아름답게 완성되지 않는 한 텍시도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톰 포드(Tom Ford) 역시 “이브 생 로랑에 있어 텍시도는 매종 역사의 일부이다. 머스쿨린 페미닌을 보다. 모던하게 해석해 준다(‘Tux look’, 2004).”라고 하여 텍시도에 대한 매력을 표현하였다.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 역시 “텍시도는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늘 모드라고 생각한다. 공통의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유연하게 한다. 텍시도는 바로 그 공통의 언어로서 이상적인 클래식 아이템이며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 텍시도는 늘 우리 컬렉션의 일부로 이 점은 컬렉션을 시작했을 때부터 변치 않았다(‘Tux look’, 2004).”라고 하여 시즌과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드레스 코드를 밝히고 있다.

III.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텍시도 룩의 미적특성

남성의 텍시도 이미지를 여성 스타일로 한 텍시도 룩은 현대 여성패션에 있어 이브닝 웨어에서 데이웨어로 영역을 확장하여 시대의 미적가치를 내재함과 동시에 디자이너 각각의 개성이 포함된 다양한 이미

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기말적 현상과 함께 현대 패션은 사회 전반에 내재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의 이분법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어떤 틀에도 구애 받지 않고 성의 양면적 가치를 그대로 표현하여 다양성과 개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따른 미적범주 역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199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텍시도 룩의 조형성을 살펴보면 텍시도 재킷의 실루엣을 여성의 신체곡선을 강조한 실루엣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인 형태 등 다양한 실루엣과 소재가 사용되었고, 디자인의 변형과 해체, 새로운 연출효과 및 여성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감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여성성, 해체성으로 코드화하여 텍시도 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성성

남성과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1차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을 갖게 되며 2차적으로 사회적인 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들을 이루고 이 관념들은 복식에서 성적 코드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성적관념의 특질은 복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남성적 이미지는 테일러스타일, 직선적이며, 무겁고 거친 재질감이나 단순하고 세련된 무채색, 벵타이, 모자, 바지스타일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적 이미지는 곡선적이며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감, 파스텔톤의 색채, 화려한 장식, 몸을 구속하거나 변형시키는 속옷, 치마스타일 등으로 표현된다(김민자, 2004). 이러한 코드들로 적용된 복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외형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 관념, 상징적인 면까지 의미하며 이러한 이미지는 패션에 반영되어 무언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제인 그로브(Jane Grove)가 20세기 복식의 혁명 중 하나는 성의 혁명이라고(Grove, 1971) 한 바와 같이 현대패션은 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은폐 및 위장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패션이 창출하는 성적이미지는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거나 반전시켜 끝없는 변화를 실현하고 있다. 남성복에 여성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남성복이 여성화되는 것에 가속을 가하기도 하였고, 여성복에 있어서는 남성복

의 아이템인 턱시도 수트, 넥타이, 와이셔츠, 바지 등 남성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남성다운 여성스러움으로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미지에 대해 도전하는 등 현대패션에 있어 성의 초월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모두 느껴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녀 모두의 특성이 제거된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특히 여성이 남성의 전유물이던 턱시도 룩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현상은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해체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화 되는 남성, 남성화 되는 여성이 만나는 점점의 성을 초월한 제 3의 성의 대두를 예고하여 남, 여 모두를 위한 공동의 패션을 제안하는 것이다(김은실, 배수정, 2000).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들어서 성 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하고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에게 자유를 추구하도록 하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반된 양면성 중 어느 한 부분도 부정될 수 없는 동등한 하나의 본질로 인정하게하여 양성성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 것이다.

<Fig. 2>는 턱시도 재킷 안에 가슴의 굴곡을 그대로 보이는 시폰과 레이스 소재의 이너웨어를 착용하

고 블랙과 화이트 색상을 선택해 화려한 턱시도의 느낌을 강조한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의 작품이다. 남, 여성의 상징적인 복장의 아이템을 공유하여 혼합함으로써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관으로부터 벗어나 남성과 여성이 공유된 통합성을 표현하고 양성적인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패션에 있어 연령과 신분, 지역을 초월한 이러한 성의 동질화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의복양식에서의 실용성이 요구되었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션미의 흐름이 부상하게 되면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서도 나타나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영, 김유연, 2005). 이러한 양성적 이미지는 주로 남성들만이 착용해왔던 패션아이템을 여성패션에 도입하거나 남성적인 요소 또는 남성적 패션이미지에 영감을 얻어 여성패션에 시도함으로써 나타났다. 특히 해체주의 시기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이란 성의 하위문화로 나누는 이분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Fig. 3> 역시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 대신 미소년과 같은 보이쉬한 스타일로 표현된 턱시도 룩이다.



Fig. 1. Yves Saint Laurent, 1966 (L'Officiel, 2002. 4)



Fig. 2. Roberto Cavalli 2005 F/W (W Korea, 2005. 12)



Fig. 3. Laurent Mercier, 2005 S/S Haute Couture (Fashion news, Vol. 101)



Fig. 4. Victor & Rolf, 2001 F/W (Vogue, 2001. 5)

몸에 꼭 맞는 짧은 턱시도 재킷은 흰색 브레이드가 장식된 팬츠, 가죽장갑, 베레모와 함께 연출되어 새로운 시각의 제시와 착장 방식 및 디자인의 변형을 통해 양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에 저항한 여성 주체의 새로운 미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패션은 개인의 주체성이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턱시도를 여성이 착용함으로써 정체성의 왜곡이나 속임수 또한 가능하게 되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패션에 있어서의 성적 구분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Valerie steel이 '19세기 검정 색의 승리는 절대적 간소함으로 나아가는 부르조아 남성복을 특징짓는 것이다(곽혜선, 금기숙, 1998),' 라고 한 것 처럼 정통 턱시도를 완성하는 검정 색상은 전통적으로 여성복보다는 남성복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남성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였으나,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현대성의 기준인 기능성, 일상성, 단순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색상으로 절대적 시크와 모던함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표현된다. <Fig. 4>는 '블랙홀'이라는 테마 아래 선보인 빅터 앤 로프(Victor & Rolf)의 작품이다. 전체적인 의상과 장식, 메이크업, 헤어까지 모두 블랙만을 사용하여 세련된 턱시도 룩을 표현하였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성에 대한 이중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옷의 재단과 구조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반면 <Fig. 5>와 같이 화려한 브로케이드 소재와 선명한 색상의 대비로 색 다른 느낌의 턱시도 룩을 표현하기도 한다. 턱시도 재킷의 원형을 보존한 체크로프트 팬츠에 턱시도 팬츠의 요소를 가미하고 여러 겹의 타이를 반복시켜 화려한 러플 장식 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형은 양성이 같은 의복을 공유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착장함으로써 남성다움의 표면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양성적 이미지를 표출한다.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남성성이 내포하는 자신감, 독립심과 같은 강한 이미지를 새로운 소비의 주체자인 여성의 패션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있어서 남성의 것, 여성의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성의 구분척도가 아니며, 각각의 성이 가지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혼합하여 이분법적인 성이 아닌 양성적 이미지라는 제 3의 성으로서 자유롭게 전개되어 나가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성

여성성이란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간주되는 여성적 특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강조함으로써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적 아름다움과 고상한 미가 느껴지는 이미지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 감응력, 감각의 우수함이라든가 미에 있어 부드러움, 온화함 같은 여성적인 미적 특성 같은 것을 뜻한다(고현진, 김민자, 2004). 현대 여성패션에서 여성성의 강조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주체적인 표현으로서 과거처럼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여성들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여성의 성적 특질을 강조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김은실, 1999).

<Fig. 6>은 2004년 2월 구찌(Gucci)를 떠나는 톰 포드의 마지막 무대에서의 작품으로 블루 벨벳 턱시도 재킷에 비즈 장식의 레이스 팬츠이다. 원래 남자가 여자를 에스코트하기 위한 옷인 턱시도는 톰 포드 특유의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여성의 신체 라인에 대한 신비감을 조장하여 여성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슴과 다리부분을 암시하는 듯 가리면서 노출하는 것은 인체를 직접 보는 듯한 암시의 효과가 있으며,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가치를 동시에 발생하는 관능적 여성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패션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의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김지연, 이경희, 2001).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복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가 반영된 유혹의 원천을 따른 것으로 관능적 매력을 표출하는 신체의 노출은 전통적인 여성미의 개념으로 전달되어 왔다(김세영, 1995). 이에 따라 턱시도 룩의 연출에 있어서도 신체노출을 통한 인체의 자연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노출에 대한 감성이 개인의 감성과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Fig. 7>은 턱시도 재킷을 가슴 부분이 노출된 여성스러운 이브닝 드레스와 함께 연출하여 턱시도가 갖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지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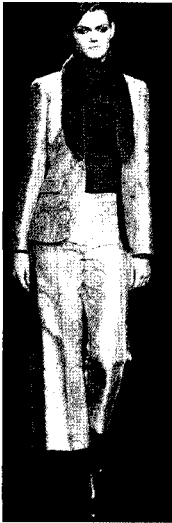


Fig. 5. Victor & Rolf,
2002 F/W
(Vogue, 2002. 5)



Fig. 6. Gucci,
2004 F/W
(L'Officiel, 2002. 8)



Fig. 7. N Y Industrie,
2002 S/S
(Harper's Barzaa, 2001.12)



Fig. 8. YSL Rive Gauche
2002 F/W
(L'Officiel, 2002. 5)

게 화려하거나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브닝 웨어의 관능적 분위기 또한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더욱 세련된 느낌을 전달한다.

또 보드리야르(J. Baudrillard)가 지적했듯이 현대 소비사회의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이상이며 날씬함과 아름다움은 아무런 자연적 친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사회의 기호체계는 이를 불가분의 것으로 표준화하고 신비화하게 한다(Baudrillard, 1970). 따라서 턱시도 룩에 있어 여성성을 강조하는 신체의 노출과 신체곡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은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니라 현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이며 또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8>은 블루 벨벳 소재로 된 몸에 피트한 턱시도 재킷을 리본 장식의 타이트한 스커트와 함께 연출하여 여성 신체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빛이 닿는 방식이나 파일의 방향에 따라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는(김기례, 채금석, 2004), 벨벳 소재를 이용하여 턱시도 룩을 표현하는 것은 여성인체의 관능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게 한다.

<Fig. 9>는 턱시도 재킷을 새틴 소재의 러플과 리본으로 장식된 플라멩코 스타일의 롱스커트, 앞가슴이 깊게 파인 비치는 소재의 블라우스등 모든 아이템

이 서로 다른 소재의 검정으로 구성되어 연출되었다. 이질적인 소재의 조합으로 미묘한 분위기를 주는 검정은 피부색과의 대조로 강한 시각적 효과를 주며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시킨다. 또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비치는 소재를 통해 연상되는 여성의 인체는 훑쳐보기의 양태로 완전한 노출보다도 더 자극적이며, 매니쉬한 턱시도 재킷은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는 스커트 형태와 조화성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우아한 여성미를 가중시키게 한다.

이와 같이 남성적 영역이라고 믿어 왔던 턱시도 룩에서 여성인체의 노출이나 여성복의 아이템등을 이용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성인체의 곡선을 표현하는 여성성의 강조는 여성의 인체를 보이기 위한 도구 아닌 여성의 성적 매력을 그대로 내보여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서의 당당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체성

20세기 후반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난 탈 모더니즘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을 겪게 됨에 따라 기존 개념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체주의는 1966년 자크 데리다(J. Derrida)를 중심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으며 해석의 불가능을 시사하였다(김지연, 전해정, 1997). 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이며 개체의 존엄과 자유, 차이, 타자,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 동안의 고정된 서구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김성곤, 1988).

현대 패션 역시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시각의 제시로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또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성광숙, 이순홍, 2004),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해체된 패션을 통해 물질문명과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아실현이라는 가치관을 표현하게 된다(이미숙, 2003).

패션에서 ‘해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서로 기존 의복구성이나 착장방식, 디자인의 원리들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한 양식으로 나타나(김은실, 배수정, 2000), 형태와 비례, 사이즈 등의 미적원리가 무시되어 모호한 부조화, 불일치 등의 추의 개념으로 미의 해체를 도모하였다(성광숙,

이순홍, 2004).

<Fig. 10>은 턱시도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모델의 바다 위에 단순히 전시의 개념으로 올려두어 인체와 무관하면서 인체와 의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자율성을 표현한 것으로, 완성되었으나 미완성되어 착장되지 않은 것처럼 착장방식의 해체를 통한 의미의 불확정성을 나타낸다. 즉 남성성을 상징하는 턱시도 재킷과 여성의 인체는 본질을 벗어나 하나의 조형물로서 인식하게끔 하며 순수 구성주의적 발상을 토대로 접근하여 의상과 인체를 각각의 독립된 조형요소로 바라보게하여 사과의 해체를 도모하였고, 이러한 특성은 착장이 아닌 비구조적, 비구축적 방법을 통해 실루엣을 완성시키고 해체된 턱시도 룩을 연출하는 착장자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해체주의는 사물을 분리하고 절단하며 부수고 조각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과 조각들은 설득력 있는 원칙 하에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Fig. 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빅 사이즈의 턱시도 재킷의 허리선을 분해한 탈구성적 경향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작품으로 과장되고 분해된 재킷의 형태는 정형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수용자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자극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나타낸다. 또 통일성,



Fig. 9. YSL Rive Gauche, 2001 FW (Vogue, 2001. 5)



Fig. 10. Jean Paul Gaultier, 2003 S/S Haute Couture (Fashion news, Vol. 84)



Fig. 11. Jean Paul Gaultier, 2001 FW (Harper's Barzaa, 200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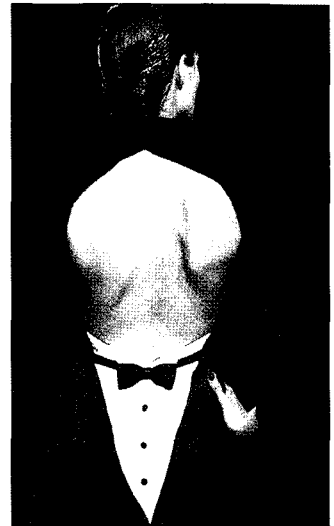


Fig. 12. Valentin Yudashkin, 1999 FW (Collection, Vol. 22)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형식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형태의 역설적 구성을 취해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디자이너의 열린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 변형의 표현 양상은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추구하던 턱시도 재킷의 완벽한 균형과 대칭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동감과 극단적인 변화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형태는 턱시도 룩의 해체적 변형을 가시화하는 특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2>는 턱시도 룩의 아이템인 재킷과 셔츠, 보우타이를 이브닝드레스 뒷면에 배치하여 패션디자인의 원리를 해체한 탈현상을 나타낸다. 해체패션에서 표현하는 탈현상은 무질서한 디자인과 탈중심, 분열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의복의 일부분을 떼어내어 비상식적인 위치로 전환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탈현상은 턱시도에 대한 전통과 가치체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Fig. 13>은 9명의 진짜 쌍둥이 모델만을 기용하여 컬렉션을 개최한 언더커버(Under Cover)의 작품이다. 과장된 헤어와 트레이닝 팬츠로 연출된 턱시도 재킷은 다른 한 모델에 의해 찢긴 듯한 불확정적인 구조로 전혀 다르게 변형되어 착장자에 의해 혹은 감상자의 해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연출되고 재해석되는 탈중심적 사고를 나타낸다. 또 완벽한 격식성을 대표하는 턱시도는 트레이닝 팬츠와 함께 연출되어 시간과 공간, 목적성에 관계없이 복식의 용도를 모호

하게 하는 T.P.O의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한다.

또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해체와 혼성모방, 절충주의로 특징지어지며, 이에 따른 패션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원본에 대한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게 한다(진경옥, 박민여, 2000). <Fig. 14>는 턱시도 재킷을 흰색 셔츠, 러플 달린 크로셰 조끼, 데님 팬츠와 함께 캐주얼한 스타일로 연출하여 형식성을 강조하는 턱시도의 기존 의미를 해체시키고 있다. 또 이브닝 웨어가 아닌 데이 웨어로 탈바꿈되어 시간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T.P.O의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내어 턱시도 룩의 비격식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턱시도 룩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 이탈, 비정상적인 이미지들은 충격적인 양식의 파괴와 혼함을 통해 그 대상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또 그 대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의 허구성을 표출하게 한다. 또한 패션의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여겨지던 턱시도에 의미를 부정하고 각기 다른 분위기의 단품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여 그 스타일들의 경계와 구분을 흐려지게 하고 이로 인해 연출되는 턱시도 룩의 스타일은 불확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스타일상의 변화는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다.

IV. 결 론

남성 예복 중 비공식적인 이브닝 행사 때 착용하는 준 예복인 턱시도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턱시도 룩이라는 하나의 스타일로 명명되어 1960년대 중반 여성복에 받아들여진 이후 이제는 이브닝 웨어 뿐 아니라 데이 웨어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여성패션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양면성을 나타내는 턱시도 룩이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내는 새로운 미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과 현대패션의 미의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턱시도 룩의 미적특성은 양성성, 여성성, 해체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해체주의 시기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이란 성의 하위문화로 나누는 이분



Fig. 13. Under Cover, 2004 S/S (Harper's Barzaa, 2003.12)



Fig. 14. Dsquared, 2005 F/W (W Korea, 2005.10)

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상징적인 복장 아이템인 턱시도를 공유하여 디자인의 변형, 새로운 착장 방법, 연출 효과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공유된 통합성을 표현하고 남성다움이나 여성스러움이라는 표면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둘째, 현대에 이르러 패션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의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턱시도 룩의 연출에 있어서도 턱시도 재킷의 소재나 색상, 디테일에 여성스러움을 가미하여 여성복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하거나 여성성을 강조하는 신체의 노출과 신체곡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남성적 영역이라고 믿어 왔던 턱시도 룩에 여성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창출하고자하는 하는 근본적인 목적 외에 여성성이라는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니라 현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패션에 있어서 해체와 혼성모방, 절충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게 하며, 턱시도 룩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새로운 법칙과 미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예복이 아닌 일상복의 아이템들과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턱시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해체하여 불확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완벽한 균형과 대칭의 실루엣, 격식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턱시도의 형식적인 개념을 부정하고 형태의 왜곡과 과장, 이탈,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 턱시도 룩의 해체적 변형을 가시화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턱시도 룩에 대한 해체성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턱시도 룩은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이미지가 지배하는 현 시대의 미적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상의 변화와 개성적 표현은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자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창조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현진, 김민자. (2004). 복식에 표현된 미적 개념으로서의 엘레강스. *복식*, 54(5), 95-108.
- 곽혜신, 금기숙.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231-252.
- 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2005). *현대 사회와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 김기례, 채금석.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1076-1087.
-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2*. 서울: 교문사.
- 김성곤. (199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은실. (1999).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실, 배수정. (2000). 장 폴 고틀리에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고찰. *가정과학연구*, 10, 60-71.
- 김세영. (1995).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이경희.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체노출의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913-924.
- 김지연, 전해정. (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32, 293-312.
- 김혜영, 김유연. (2005).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패션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1), 43-58.
- 성광숙, 이순홍. (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II. *복식*, 54(7), 151-164.
- 신인수, 임상임, 김혜경, 이진희. (2003). *현대 패션의 이해*. 서울: 교학연구사.
- 이미숙. (200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카무플라주 패턴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경옥, 박민여. (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5), 143-158.
- 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남자의 옷 이야기*. 서울: 시공사.
- 패션 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FASHION Dictionary*. 서울: 교문사.
- 허정신, 금기숙. (2004).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에 관한 연구. *복식*, 54(3), 145-158.
- Baudrillard, J.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Paris: Gallimard.
- Grove, J. (1971). *Fashi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Tux look. (2004, 12). *Vogue Korea*, p. 171.